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문화 갈등에 관한 다층적 시각*

이 지 혁**

요약

이웃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관계는 공통의 유대감(a common feeling of belonging)부터 상호협력(mutual cooperation), 그리고 철저한 적대감(outright hostility)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띤다. 1963년부터 1966년까지 지속된 수카르노(Sukarno) 주도의 ‘대결(konfrontasi)’ 국면이 종식된 이후 양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화 소유권 갈등을 필두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빈번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얼핏 보기에 단순한 문화갈등처럼 보이지만, 기실 내면 깊은 곳의 정치적 갈등, 이주 노동자 문제, 영유권 문제,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경제 발전에 따른 뒤바뀐 형님(abang)-동생(adik) 관계 등이 복잡하게 뒤엉켜서 발생한다.

문화갈등은 과거 유사한 문화를 공유했던 유동적 종족집단이 서로 다른 국가를 건설할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의 전형을 보여준다. 문화갈등은 ‘말레이(Malay)’라는 개념에 대한 국가 간 인식의 차이와 각각의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상이성을 보여준다. 또한 문화갈등은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무엇보다도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0075).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선임 연구원, tankm@daum.net

인도네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영역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에 대한 국민적 분노, 질시, 그리고 자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배출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

주제어: 문화, 전통, 갈등, 정체성, 국민국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I. 들어가는 말

문화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국가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된 복합사회일수록 국민을 결속시킬 공통된 문화 혹은 국민문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오랜 식민지배가 끝나고 신생 독립국이 되었을 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모두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는 다양한 종족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하는 것이었다(Osborne 2004, 216).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권력의 기술(technology of power) (Foster 1991)로서 두 국가 모두 자신들이 전통문화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구심점으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과거 특정 종족에 국한되었던 문화를 현재의 국가 영토에 속한 모든 종족이 함께 공유했던 문화인 것처럼 새롭게 재창조하거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포함하는 해양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함께 공유했던 문화에 대해 서로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형태로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웃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관계는 공통의 유대감(a common feeling of belonging)부터 상호협력(mutual cooperation), 그리고 철저한 적대감(outright hostility)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띤다(Holst 2007, 327). 1963년부터 1966년까지 지속된 수카르노(Sukarno) 주도의 ‘대결(konfrontasi)’ 국면이 종식된 이후 양 국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화 소유권 갈등을 필두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빈번한 마찰을 빚고 있다. 두 국가의 외교관계가 최저점(nadir)(Clark and Pietsch 2014, 27)에 도달한 1960년대에 사용되었던 ‘쳐부수자 말레이시아(ganyang Malaysia)’라는 구호가 다시 등장하고, 인도네시아 언론과 인터넷 매체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얼핏 보기에 단순한 문화갈등처럼 보이지만, 기실 내면 깊은 곳의 정치적 갈등, 이주 노동자 문제, 영유권 문제,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경제 발전에 따른 뒤바뀐 형님(abang)-동생(adik) 관계(Kremer 2011, 29)등이 복잡하게 뒤엉켜서 발생한다(Chong 2012, 1). 이와 같은 갈등을 간략하게 세 가지 범주로 정리하면 ‘영유권 분쟁’, ‘이주 노동자 문제’, 그리고 공유된 문화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주장’이다(Benni 2010, 2-6). 갈등을 초래하는 경중의 차이에서 영유권 분쟁 및 이주 노동자 문제가 문화갈등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고 세 인자가 다른 인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화갈등에 더 비중을 두고 관계를 조명하고자 한다. 문화갈등은 과거 유사한 문화를 공유했던 유동적 종족집단이 서로 다른 국가를 건설할 때 직면하게 되는 문제의 전형을 보여준다. 문화갈등은 ‘말레이(Malay)’라는 개념에 대한 국가 간 인식의 차이와 각각의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상이성을 보여준다. 또한 문화갈등은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고,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영역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에 대한 국민적 분노, 질서, 그리고 자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배출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문화갈등을 초래한 전통문화¹⁾들의 특징과 이러한 갈등을 촉발시킨 일련의 사건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문화갈등과 관련된 사건들을 정리 및 분석하고, 갈등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 양 국가가 차이를 보이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문화갈등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통해 두 국가의 독특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양 국가의 역사적 배경 및 관계를 고찰하고,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관해선 문헌연구의 연장으로서 신문과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다. 문헌연구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14년 10월, 2015년 8월에 각각 3주 동안의 현지조사를 실시했다.²⁾ 한편 문화갈등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양국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지만, 필자는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문화갈등이 양 국가에 미친 영향력이 비대칭적임을 발견했다. 인도네시아 인들은 자국이 문화갈등의 피해

1) 본 글에서 ‘전통문화’는 독립국가가 형성되기 이전, 즉 국가 간 경계선이 형성되기 이전에 서로 공유했던 문화를 지칭한다. 광범위한 문화의 개념은 ‘총체적·포괄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분적·특수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문화는 후자에 가까운 것으로서 “물질적·경제적 활동 및 그 산물과 구별되고 또한 정치적 활동과 구분되는 ‘지적·정신적·심미적·예술적·오락적 활동 및 그 산물들’을 의미한다(정태석 외 2012, 223).” 레이몬드 윌리엄스(Williams 1976, 80)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화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의 범주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 지적, 정신적 그리고 미학적 발전의 일반적 과정”, 둘째, “한 민족이나 기간, 집단 혹은 인류의 총체적인 삶의 양식”, 셋째, “지적이고 예술적인 활동들과 그것들의 산물들”이다. 본 글에서의 문화는 윌리엄스의 문화 정의의 세 번째 범주와 가장 유사하다.

2) 현지조사 동안 공식적인 인터뷰와 비공식적인 인터뷰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공무원(4명), 대학 강사(3명), 말레이시아에서 유학 온 의과 대학생(4명), 20-30대 일반 시민(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쿠알라룸푸르에 거주하는 대학 강사(2명)와 20-30대 일반시민(10명)을 인터뷰했다. 또한 2015년 5-6월 사이에 한국에 방문한 인도네시아 학자(1명)와 언론인(2명)을 서울에서 심층 면접했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질문은 ‘문화갈등의 인지여부, 갈등이 초래된 전통문화에 대한 기본지식, 갈등 원인에 대한 개인적 의견, 상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국가에 대한 감정, 문화 갈등에서의 언론의 역할’ 등을 포함한다.

자, 말레이시아는 가해자라고 인식하고 매번의 사건마다 물리적 시위를 동반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또한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토로했다. 반면 말레이시아 언론은 문화갈등을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지 않았고, 그에 따라 문화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매우 낮았다. 따라서 필자는 연구의 제한으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문화갈등을 다루고 있음을 밝히고, 차후 후속 연구에서는 말레이시아의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관계 연구는 양 국가의 학자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출신 학자들과 서구 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홀스트(Holst 2007)의 연구논문 “디스-커넥티드(Dis-connected) 된 역사: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관계”와 바이스(Weiss 2010)의 연구논문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의 양자관계: 문제 많은 집안의 형제 라이벌”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논문 모두 수카르노 대통령에 의해 주도된 1960년대의 대결(konfrontasi) 국면부터 최근 말레이시아의 경제발전에 따라 뒤바뀐 형님(abang)-동생(adik) 관계, 영유권 문제, 이주 노동자 문제 등 두 국가의 애증관계(Wardhani, 1999)를 잘 보여준다. 브라운(Brown 2005)의 “정치적 정체성의 형성과 관리: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비교”는 단일국가 체제를 추구하는 인도네시아와 연방국가 체제를 추구하는 말레이시아의 정치적 정체성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언급된 모든 선행연구들은 다소 최근에 발생한 문화유산 갈등을 두 국가 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삼을 수 있는 연구로는 충(Chong 2012)의 연구논문 “나의 것, 너의 것, 아님 우리의 것?: 공유된 문화유산에 대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논쟁”과 클라크와 피에츠(Clark and Pietsch 2014)의 저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관계(Indonesia-Malaysia Relations)』가 있다. 전자의 경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문화갈등에 대한 사례와 원인에 대해 다루고 있긴 하지만 연구의 초점이 국제법의 관점에서 공유된 문화유산에 대한 인도네시아 혹은 말레이시아의 배타적인 소유권이 적용될 수 없음에 맞춰져 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 양 국가의 관계를 문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루고 있어서 문화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문화갈등과 그에 대한 양 국가의 반응의 차이점에 대한 농밀한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개별 국가에 대한 연구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일한 문화권의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문화갈등을 다루는 논문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 국가의 관계를 문화갈등을 통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문화갈등 사례

사회전반에 잠재되어 있는 양 국가의 문화갈등이 어느 한 순간에 발생하는 일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특정 사건을 발단으로 불거져 나온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차관인 위엔두 누르얀띠(Wiendu Nuryanti)에 따르면 지난 5년(2012년 기준) 동안 말레이시아 측에 의해 자국의 문화라고 주장된 인도네시아의 문화는 일곱 가지다.³⁾ 일곱 항목을 살펴보면, 말루꾸(Maluku) 암본(Ambon) 지방의 민요인 라사 사양(rasa sayang(e)), 동부 자바의 뽀노로고(Ponorogo) 지방의 전통 탈춤인 레옥(reog), 발리의 전통춤인 뽀넛(pendet), 자바의 전통 염색법인 바딕(batik), 순다족의 대나무 전통악기인 앙끌룽(angklung), 말레이시아에서 바리오(Bario)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전통 쌀⁴⁾, 북 수마트라(Sumatra)의 만다일링(Mandailing) 지방의 전통 춤인 포르포르(tortor)와 타악기인 고르당 삼빌란(gordang sambilan)이 있다(*Jakarta Post* 2012/06/19).

위에서 언급된 항목들과 그와 관련된 갈등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 먼저 2007년 10월 말레이시아 관광청이 해외용 관광홍보(Malaysia Truly Asia Campaign) 영상물에 말루꾸 암본 지방의 민요인 ‘라사 사양’⁶⁾을 사용하자, 인도네시아 국민수권당(PAN)의 하캄 나자(Hakam Naja)와 골까르(Golkar)당의 뿌리요 부디산토소(Priyo Budi Santoso) 국회의원은 저작권 위반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가 말레이시아를 고소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tar* 2007/10/04).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문화예술부 장관 라이스 야뎀(Rais Yatim)은 라사 사양은 ‘말레이 군도’에 살던 조상들로

3) 위엔두 누르얀띠는 일곱 가지 사건을 발생한 순서에 따라 언급했지만 일부 사건의 경우 발생한 시점이 부정확하거나 시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필자가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먼저 발생한 사건 순으로 나열했다.

4) 인도네시아에서는 바리오(Bario)가 동부 칼리만탄(Kalimantan)의 누누칸(Nunukan) 지방에서 생산되는 아단 크라얀(adan krayan)이라고 주장한다.

5) 쌀은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문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한다.

6) ‘Rasa Sayang’은 말레이어로 사랑의 감정(feelings of love)이라는 뜻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Rasa Sayang’을 ‘Rasa Sayange’로 부른다.

부터 전해온 노래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측이 작곡가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관광부장관 땡꾸 아드난 땡꾸 만소르(Tengku Adnan Tengku Mansor)는 라사 사양은 누산따라 군도(Kepulauan Nusantara)의 민요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자신의 노래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Bob 2007).⁷⁾

‘레옥 뽀노로고’의 경우, 라사 사양과 마찬가지로 기원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2007년 11월에 말레이시아의 관광홍보(Malaysia Truly Asia Campaign) 영상물에 사용되었고,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이의를 제기했다. 레옥 뽀노로고는 동부 자바의 뽀노로고 지역의 전통 춤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는 ‘따리 바롱안(Tari Barongan)’으로 불린다. 무엇보다 레옥 춤에 사용되는 전통 탈의 중앙에 새겨지는 ‘Reog Ponorogo’라는 글자 대신 ‘Malaysia’를 새겨 넣었다는 사실이 뽀노로고 주민들을 격노하게 만들었다.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레옥의 기원이 말레이시아임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Mapson 2010), 2007년 11월 29일에는 약 천 명가량의 인도네시아 인이 화려한 전통의상을 입고 자카르타에 있는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서 말레이시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수백 명의 레옥 뽀노로고 무희들의 공연과 행진으로 이어졌고 도둑 국가라는 뜻의 ‘말링시아(Malingsia)’⁸⁾ 피켓이 등장했다. 말레이시아 대사(Zainal Abidin Zain)는 시위자들을 향해 “말레이시아는 결코 바롱안이 우리나라(말레이시아)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라고 항변했고(Pathoni 2007), 말레이시아 정부는 12월 4일 홍보 동영상에서 문제가 되는 춤들⁹⁾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Bob 2007).

7) 인도네시아의 저작권 협회장 엔퉁 따나말(Enteng Tanamal)은 라사 사양이 작자 미상의 곡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고소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Star 2007/10/03).

8) ‘maling’이라는 단어는 인도네시아어로 ‘도둑’이라는 의미다.

2009년에는 ‘신비로운 말레이시아(enigmatic Malaysia)’라는 다큐멘터리의 광고 영상에 발리 사원의 전통 춤인 뻬넛(pendet)¹⁰⁾이 사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Independent* 2009/09/28; Gelling 2009). 뻬넛의 경우는 다른 주변의 여러 상황과 맞물려 심각한 감정적 대립을 불러일으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때까지 감정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고, 말레이시아 정부에게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인도네시아 예술 학교(Institut Seni Indonesia Denpasar) 교수인 와얀 디비아(Wayan Dibia)는 광고 영상물에 등장하는 춤은 2-3년 전에 발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두 명의 무희는 자신의 학교 졸업생이라고 밝혔다(Andi 2009). 이 문제에 대해 말레이시아 문화관광부 장관 야땀(Rais Yatim)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문제의 영상이 싱가포르에 위치한 디스커버리 채널(discovery channel)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정부와 무관한 것임을 주장했다. 같은 시기에 디스커버리 측에서도 문제의 영상물이 말레이시아가 아닌 독립된 기관에서 공급받은 자료임을 밝히고, 전체 영상에서 이 장면을 삭제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Jakarta Post* 2009/09/04).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제로 와찌(Jero Wacik)은 말레이시아 측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앞서 발생한 반복되는 문화 소유권 갈등을 생각해볼 때 말레이시아 정부의 사과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Sagita 2009). 인도네시아의 성난 군중들은 자카르타에 있는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돌과 썩은 달걀을 투척했고(Gelling 2009), ‘ganyang Malaysia(쳐부수자 말레이시아)’를 다시 사용했다. 또한 거리에서 말레이시아인을 색출하기 위해

9) 인도네시아에 의해 문제가 제기된 춤에는 레옥 뽀노로고 뿐만 아니라 엔당(Endang)이라는 춤도 포함되어 있다.

10) 뻬넛은 발리 지역의 성스러운 춤으로서 최근 행사나 관광객을 맞이할 때 환영을 의미하는 춤으로 이용되어왔다(Prathivi 2009).

행인들을 멈춰 세워 검문을 실시했다(*BBC News* 2009/11/12).

발리의 덴빠사르(Denpasar) 문화 공원에서도 수십 명의 예술가와 수백 명의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Prathivi and Wardany 2009). 본 데라(Bendera: Benteng Demokrasi Rakyat)¹¹⁾라는 자경단의 지도자인 무스따르 보나 벤투라(Mustar Bona Ventura)는 자신들의 목표가 말레이시아에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아무도 이것(전쟁)을 할 용기는 없다. 오직 우리 본데라만이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상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적인 시도가 효과 없으면 명백하다(*BBC News* 2009/11/12).

한편 특정 사건을 발단으로 갈등이 초래된 앞의 경우와 달리 바딕은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계기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다. 독립 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모두 바딕을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로 간주하고 국민문화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인도네시아가 바딕을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고, 2009년 10월 2일 등재가 확정되면서 바딕이 인도네시아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2009년에는 뻬뎃 춤을 비롯하여 암바랏(Ambalat) 지역의 영유권 갈등과 인도네시아계 미국인 모델 마노하라(Manohara Odelia Pinot)의 성폭행 주장¹²⁾ 등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양 국가의 감정적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시기에 발표된 바딕의 유네스코

11) Bendera는 'Benteng Demokrasi Rakyat'의 줄임말로써 단어의 뜻을 직역하면 '민중의 민주주의 보루'이다. 한편 'bendera'라는 단어 자체는 국기(國旗)를 의미한다.

12) 마노하라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글 4장 참조.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소식은 인도네시아 인들로 하여금 마치 라이벌 말레이시아와의 문화전투에서 기선제압을 한 것 같은 기쁨을 선사했다. 뉴욕타임스는 ‘인도네시아 바딕 전투에서 승리(Score One for Indonesia in the War Over Batik)’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Gelling 2009). 유도요노(Yudhoyono) 대통령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바딕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날인 10월 2일을 바딕의 날로 정하고, 온 국민들에게 바딕 착용을 권장했다. 말레이시아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바딕이 자국의 문화임을 표방하는 행동을 취하기는 했지만, 말레이시아가 유네스코에 바딕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부 인도네시아 인들은 마치 자신들이 말레이시아와 등재를 위한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 같은 도취감에 사로잡혔다. 제로 와찍은 “우리는 우리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한 번에 하나(one tradition)씩 말레이시아와 대결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Maulia 2009). 앙끌룽(angklung)도 바딕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화제가 된 것은 아니다. 2010년 인도네시아는 앙끌룽을 네 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킴으로써 공유된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말레이시아와의 불편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¹³⁾

가장 최근에 발생한 북 수마트라(Sumatra)의 만다일링(Mandailing) 지방의 춤인 토르토르(tortor)와 아홉 개의 타악기로 구성된 고르당 삼빌란(gordang sambilan)에 대해 살펴보면, 2012년 6월 14일 인도네시아 언론은 토르-토르(tor-tor)와 고르당 삼빌란(gordang sambilan)¹⁴⁾

13)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도네시아의 인류무형문화 유산은 지금까지 총 네 가지로서 2008년 와양 꼴릿(그림자 인형극), 2008년 프리스(전통 검), 2009년 바딕(염색법), 그리고 2010년 앙끌룽(전통악기)이다.

14) 아홉 개의 북으로 이루어진 전통 악기로서 결혼식, 귀족의 취임식, 귀중한 손님 접대, 그리고 장례식 같은 중요 예식에서 연주된다. 주로 의식적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연에 앞서 나모라-나토라스(Namora-Natoras)라 불리는 라자의 승

이 말레이시아의 국가문화유산법(National Heritage Act 2005)에 의해 말레이시아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보도했다. 그 보도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정보·소통·문화부 장관인 라이스 야뎀(Datuk Seri Rais Yatim)은 만다일링 지역의 춤과 악기가 2005년 국가문화유산법에 등록되었고 관광 홍보를 위해 이용했음을 인정했다(*Jakarta Globe* 2012/09/20). 라이스 야뎀 장관은 말레이시아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자신들의 예술이 인정받고 등록되기 위한 쪽은 다름 아닌 만다일링 주민(이주민)들이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말레이시아가 인도네시아의 예술을 삼키려고 한다는 억측 대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인도네시아의 예술을 가로채려는 것도 그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단지 국가 내에 이러한 예술의 존재와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Jakarta Globe* 2012/09/20).

라이스 야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인도네시아 측은 이전과 같이 감성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몇몇 국회의원들과 트위터 사용자들은 격한 표현을 사용해서 불편한 감정을 표출했다. 성난 군중은 자카르타에 있는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서 말레이시아 국기를 불태우고 돌맹이를 투척했다(Chatterjee 2012). 말레이시아 정부는 6월 25일에 인도네시아 대리대사(代理大使)를 소환해서 폭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2012년 7월 7일 양 국가의 협력 방안 및 다른 여러 현안을 논

인을 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버펄로의 도살이 선행되어야 했다. 상당한 체력을 요하는 공연 중 일부 공연자는 황홀경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과 버펄로의 부족으로 공연은 거의 중단되었다. 그 후 연주를 부활시키기 위해 공연에 수반되는 절차를 간소화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970년 이후로 고당 삼빌란은 만다일링 사람들의 공연 예술의 하나로 간주되기 시작했다(Lubis 2001, 119).

의 차 인도네시아에 방문한 말레이시아 부총리 야신(Tan Sri Muhyiddin Yassin)은 말레이시아의 의도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보존하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덧붙여서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문화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에게도 도움이 될 것임을 피력했다. 말레이시아의 만다일링 지역 협회 회장인 라밀 압둘 까림 하시부안(Ramil Abdul Karim Hasibuan) 또한 문화유산으로의 등록과 문화유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다른 것임을 강조하면서 단지 문화를 잘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Chatterjee 2012).

이상에서 살펴본 사례 외에도 말레이시아의 국가(國歌)인 느가라꾸(Negaraku), 2008년 인도네시아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그림자 극인 와양 꼴릿(wayang kulit), 전통 칼인 끄리스(keris) 등을 포함한 대략 20개¹⁵⁾가 넘는 항목에서 문화갈등이 발생했다.

문화갈등의 일반적인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말레이시아가 전통문화로 간주되는 문화의 일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측의 정치인 및 언론이 말레이시아에 의해 자국 문화가 ‘도용’ 혹은 ‘절도’ 당했다는 감정적이고 자국적인 주장을 전개한다. 이 사실을 접하게 된 인도네시아 시민은 감정적으로 동요되고, 그 중 일부 성난 군중들은 물리적 폭력이 동반된 항의 집회를 결성하고, 중국에는 문화갈등은 국가적 감정 대립으로 치달게 된다. 대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측은 말레이시아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합

15) 언론매체와 인터넷에서 언급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은 악기(gamelan, angklung), 직물(batik, ulos), 춤(reog ponorogo, tari pendet, kuda lumping), 음악(injit-injit, rasa sayang, soleram, sungai Garinggian, jali-jali, kakatua, anak kambing saya), 무기(badik tumbuk lada, keris), 고문서(Naskah kuno), 음식(rendang), 인형(wayang kulit) 등이다(Tempo 2011/08/17-23; Clark and Pietsch 2014, 67). 나열된 항목 중 일부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도 소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한다.

게 자국 정부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반면, 말레이시아 측은 상대방의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을 이해할 수 없으며 공유된 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소유권 주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IV. 문화갈등을 바라보는 다층적 시각

본 연구가 갈등사례에 주안점을 둠에 따라 전반적으로 양국 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기실,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사례도 빈번하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협력은 어느 때보다도 긴밀해지고 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가, 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담 및 전문가 집단의 정례회담¹⁶⁾ 개최, 그리고 ‘하트 오브 보르네오(HoB: Heart of Borneo)’¹⁷⁾ 같은 국경지대의 자연환경 및 천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자발적 회의체 발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듯 이웃한 두 국가가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함에도 불구하고 문화 영역에서는 상호 대치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갈등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앞 장에서 정리한 문화갈등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왜 문화갈등에 대해 인도네시아 인들

16) 몇 가지 예를 들면, 2007년부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학자들과 대학생들이 매년 양국의 관계 개선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Indonesia-Malaysia International conference’와 오피니언 리더, 학자, 정책입안자들이 함께 양국 관계를 논의하는 ‘Strategic Bilateral Colloquium’ 등이 있다.

17) ‘The Heart of Boreo’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삼국이 보르네오(갈리만판) 지역의 생물학적 다양성 유지와 생태계 및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협의회로서 2007년에 발족했다.

은 감정적이고 정치적으로 반응하는가?’, 둘째, ‘왜 인도네시아는 문화가 발생한 지역 혹은 종족을 중시하는 반면 말레이시아는 양국의 문화가 공유된 것임을 강조하는가?’ 셋째, ‘왜 상업적으로 문화를 이용하려는 말레이시아에 대해 인도네시아 언론은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는가?’이다. 필자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역사적 연원을 포함하여 문화갈등 사례를 다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시각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갈등의 역사적 연원

(1) 공유된 문화

식민지배 이전부터 잦은 무역, 지리적 근접성, 그리고 문화적 유사성 등으로 인해 도서부 동남아 내에서 광범위한 이주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교류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문화적 접촉은 지역 내 거주민들의 유대감을 강화시켰다. 과거 자신이 속한 공동체 혹은 출생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지역에서 흔한 관행이었다. 문화와 관련된 갈등의 근본 원인은 국경으로 나뉜 정치 공동체와 식민 시대 이전의 문화 공동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정치적 국경이 국민국가가 존재하기 이전 시대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Ghulam-Sarwar 2013, 65). 대항해시대부터 시작된 서구와의 접촉과 이어진 식민지배는 동남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식민지배가 초래한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서 가장 가시적이고 중대한 것으로 국가 경계선의 확정을 꼽을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베트남을 제외하면 식민지배 이전 동남아 국

가들의 권력체계는 명확하지 않았고 통치자의 권력이 미치는 지리적 경계가 불분명했다(Osborne 2004, 44). 과거 동남아 지역에서 치러진 전투는 영토를 확보하기보다는 사람을 포획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풍부한 데 비해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Reid 1998, 122). 우리가 편의상 국가라고 부르는 전통 시대의 동남아 정치체제는 20세기에 국가라고 불리는 정치적 단위와는 큰 차이가 있다(Osborne 2004, 45). 따라서 동남아에 지금과 같은 국경 개념이 생겨난 것은 서로 다른 유럽 국가의 식민지배의 결과이다.

식민지배 이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동질성과 응집성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동일한 문화권에 속했다. 본래 두 나라는 지금의 필리핀, 브루나이, 싱가포르를 아우르는 군도라는 의미의 누산따라(Nusantara) 문화권에 속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과거 ‘믈라유(Melayu)’와 ‘자와(Jawa)’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었다(Vickers 2004, 54). 무역을 위해 동남아에 온 아랍 상인들은 말레이 반도와 인도네시아 군도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오랑 자위(orang Jawi)’라고 불렀다. 하지만 포르투갈인들이 진출하면서 ‘말레이(Malays)’와 ‘자바(Jaos)’¹⁸⁾는 뚜렷하게 구분된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Tirtosudarmo 2005, 6).

식민지배 이전의 두 국가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동일한 혈통’ 혹은 ‘공통의 원초적 유대(common primordial sentiments)’라는 뜻의 ‘스름뽀(serumpun)’이 있다(Liow 2010, 1). 유사한 문화, 종교, 그리고 무역은 누산따라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 상호간의 유대감을 강화시켰다(Holst 2007, 328). 특히 이슬람의 전파는 문화적 동질

18) ‘Jaos’는 포르투갈어로 자바인(Javanese)을 의미한다.

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리오(Liow 2005, 9)는 두 국가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동질성이 ‘말레이-무슬림 동포주의(Malay-Muslim blood brotherhood)’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브라운(Brown 2005, 3-6)은 인도네시아 군도와 말레이 반도에 수평적 정체성이 태동하는 데 이슬람 전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정체성을 수직적 정체성과 수평적 정체성으로 구분하는데, 전자는 권력과 사회의 계급적 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반면 후자는 문화적 특성에 기반을 둔다. 수평적 정체성은 지역에 바탕을 둔 정체성이 아닌 보편적 이슬람 세계(Islamic ummat)에 기반을 둔 공동체 의식을 형성케 했다.

유동적이고 경계가 불분명했던 플라유와 자와는 서구와의 접촉이 시작되면서 분명한 경계를 갖게 되었다. 상업적 이익을 찾아 침입해 온 유럽세력들이 땅을 자의적으로 구획하고 식민지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경계가 생겨났고, 이전에 유동적이었던 종족공동체는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현재의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국경선은 1824년 영국과 네덜란드가 체결한 조약(the Anglo-Dutch treaty)에 근간을 두고 있다. 조약에 따라 말레이 반도 지역은 영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네덜란드령 동인도(the Dutch East Indies) 지역은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받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현재 서로 다른 정치공동체지만 인도네시아 정치 엘리트들이 일본 식민지배자들과 독립을 논의하는 단계까지만 해도 동일한 혈통(*serumpun*)을 명분 삼아 통합된 하나의 국가를 건설할 계획을 견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일본의 패망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도네시아의 독립은 통일 국가의 꿈을 무산시켰다. 그 이후 각각 독립된 국가를 수립하면서 최근 양국의 관계는 마치 형제의 라이벌 관계(*sibling rivalry*)(Weiss 2010)처럼 변했다.

(2) 인도네시아 라이(Indonesia Raya), 말라야 라이(Malaya Raya)

식민지배가 끝날 무렵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민족주의자들이 보여준 독립국가에 대한 청사진은 최근의 문화갈등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일본의 식민지배 하에서 독립을 준비하던 민족주의자들은 ‘네덜란드령 동인도’와 ‘영국령 말라야’ 및 ‘영국령 브루나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대 인도네시아(Indonesia Raya)’ 혹은 ‘대 말라야(Malaya Raya)’를 구상하고 있었다. 동족의식에 기반을 두고 네덜란드령 동인도와 영국령 말라야를 하나로 묶으려는 정치화 현상의 시발점은 20세기 초반 이집트 카이로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말라야와 네덜란드령 동인도 학생들의 운동이었다(Liow 2005, 54). 카이로에 있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유학생 협회(Jami'ah Al-Khairiyah)는 ‘스루안 아자르(the Seruan Azhar)’라는 월간지를 통해 변영과 발전을 위한 통일의 필요성을 호소했다(Roff 1994, 88-89; Wardhani 1999 재인용).¹⁹⁾

1945년 5월 28일 인도네시아 독립조사준비위원회(BPUPKI: Badan Penyelidik 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는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 족자까르파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역사적인 모임에서 새롭게 독립될 인도네시아에 말레이 반도와 영국령 보르네오를 포함시킬지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었다(Holst 2007, 329; Liow 2005, 58). 투표는 찬성 45명, 반대 19명으로 식민지배에 의해 분리된 두 지역을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Holst 2007, 329).²⁰⁾ 말라야 측에서도

19) 이슬람 개혁주의에 영향을 받은 학생운동은 반-식민주의 노선을 통해 서로 연대의식을 형성했고, 서구의 식민지배에 의해 퇴색된 말레이-무슬림(Malay-Muslim)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부활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인도-말레이 세계라는 연대감의 근원은 반-식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이념의 등장에서도 발견된다. 사회주의-민족주의자들은 반-식민주의라는 측면에서 이슬람 세력과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했다(Liow 2005, 54-56).

이브람힘 야콥(Ibrahim Yaacob)을 중심으로 말라야와 네덜란드 동인도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었다. 부기스(Bugis)족의 후손인 야콥은 1938년 청년 말라유 동맹(KMM: Kesatuan Melayu Muda)을 조직해서 인도네시아와 연합된 형태의 독립, 즉 ‘대 말라야(Malaya Raya)’ 구성을 주장했다. 말레이시아인 정치학자이며 역사가자인 파리쉬 누르(Farish Noor)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처럼 묘사한다.

말라야라야 혹은 인도네시아-라야에 대한 꿈은 단지 향수로 인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었다. 그것은 외국 세력이 체결한 조약과 협정에 의해 인도-말레이(Indon-Malay) 세계가 찢겨어지고, 그 (찢겨어진) 상태로 말레이인들과 그들의 조국에 전해진 충격적 양상에 대한 깨달음이었다(Noor 2006, 6).

1945년 8월 12일에는 말라야 삐락(Perak)의 타이핑(Taipung)에서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민족주의자들이 모여 인도네시아 독립에 말레이 반도를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하따(Hatta)와 동행한 수까르노는 이브라힘 야콥과 악수를 나누며 함께 하나의 모국(motherland)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모임을 가지고 3일이 지난 후 발생한 갑작스런 태평양 전쟁의 종결과 일본의 항복 선언은 새로운 국가에 대한 비전을 현실로 구체화시킬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Holst 2007, 330; Liow 2005, 58).²¹⁾ 일본의 항복 선

20) 투표의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찬성 45명 중 39명은 새롭게 독립될 인도네시아에 말라야, 영국령 보르네오, 그리고 포르투갈령 띠모르까지 포함하는 안에 찬성했고, 나머지 6명은 네덜란드령 동인도와 말라야 두 곳의 통합에만 찬성했다(Holst 2007, 329; Taylor 2003, 322).

21) 인도네시아 라야(Indonesia Raya)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과 잇따른 독립선언에 말라야와 영국령 보르네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근본적으로 일본 군부는 인도네시아의 독립에 말라야를 포함시키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배는 네덜란드령 동인도와 영국령 말라야를 하나의 체제하에 위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일본의

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수까르노와 하타는 말라야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인도네시아만의 독립을 선언했다. 통합된 국가를 이루려는 목적에 있어서 국가와 조직에 따라 차이가 존재했을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Indonesia Raya’ 구상이 다양한 종족을 통합해서 확장된 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주의적 발로였다면, 말레이시아에서 ‘Malaya Raya’ 건설은 말레이가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인종적인 차원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Wardhani 1999, 32).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20세기 중반까지도 동일한 언어, 문화, 종교를 바탕으로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양 국가의 문화갈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2. 반-말레이시아 정서의 배출 채널

문화를 포함한 양 국가의 대립은 2009년을 전후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그 후 다소 진정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문화갈등이 있을 때마다 인도네시아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반-말레이시아 정서는 문화와 관련된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적대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Chong 2012, 1-2; Clark and Pietsch 2014, 67-89). 물리적 시위를 동반한 인도네시아의 감정적 대응은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폭발시키는 도화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분쟁 때마다 물리적 시위를 주도하는 자경단(Bendera)의 지도자 무스따르 보나 벤

태평양 전쟁의 종결과 일본의 항복은 통일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브라힘 야콥은 그의 회고록에서 만약 수까르노에게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다면 말라야를 인도네시아에 포함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뚜라(Mustar Bona Ventura)의 주장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2009년 펜넷(Pendet)과 관련된 시위에서, “이 시위는 (말레이시아의) 우리 섬들에 대한 소유권 주장과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포함한 총체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Mardiyati 2009, 1).

영유권 문제는 식민 역사의 잔재, 경제적 이해득실, 그리고 영토의 자주권 같은 첨예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상당한 길이의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경선이 당사국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영토 분쟁의 근본 원인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깔리만판이라 부르고 일반적으로는 보르네오라고 알려진 거대한 섬의 동쪽 해안은 양국뿐만 아니라 필리핀까지 영유권 문제에 가담된 복잡한 지역이다. 서로의 주장이 상충하는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북 깔리만판(보르네오) 동부 해안과 말레이시아의 사바(Sabah) 주의 남동쪽에 위치한, 15,235 평방킬로미터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된 암바랏(Ambalat)²²⁾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2002년 암바랏 지역에 있는 두 섬(Sipadan, Ligitan)에 대한 영유권 분쟁²³⁾에서 말레이시아에 패한 경험이 있다. 이 분쟁은 1998년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제소되었고, 2002년 12월 17일 말레이시아의 주권으로 인정되면서 종결되었다(Valencia and Khalid 2009; Razak 2009).²⁴⁾ 하지만 ICJ는 해양

22) ‘Ambalat’은 인도네시아 측에서 지칭하는 이름이고, 말레이시아에서는 동일한 지역을 ND6-ND7으로 부른다.

23) 분쟁의 최초 발단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9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새로운 지도를 편찬하면서 이 지역을 자국 영토로 설정했고, 1980년 중반부터 시빠단(Sipadan) 섬을 스킨 스쿠버를 위한 휴양지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말레이시아의 행동을 영유권 침범으로 간주했다.

24) 소송에 대한 말레이시아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분쟁이 되는 도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거북이와 거북이 알 양식을 해오고 있고, 그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했으며, 과거 북 보르네오 지역의 식민 당국이었던 영국이 1933년에 시빠단 섬에 조류 보호구역 설립했고, 1960년대 초반에 말레이시아 정부가 양 섬 모두에 등대를 건설했으며, 그 등대들을 지금까지(2002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선에 관해서는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았다. 그 결과 영토 분쟁은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영토와 관련된 매번의 실랑이마다 갈등은 국가적 감정의 고조를 동반했고, 2009년 5월 25일 암바랏(Ambalat) 해역에서 인도네시아 군함이 말레이시아 군함을 몰아내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고조에 이르렀다.²⁵⁾

복잡한 갈등 양상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감정의 골이 깊은 것은 이주 노동자 문제다(Chong 2012, 15). 말레이시아에서 실업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중산층이 확산되던 마하티르(Mahathir) 수상 시절에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3가량을 차지하는 미등록 노동자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말레이족과 비-말레이족의 인구 비율에서 전자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이주 노동자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Kremer 2011, 29). 이주 노동자들은 선거에서 말레이족에게 유리한 상황을 가져다주고 중국인과 인도인에 대한 인종적인 버퍼링(buffering)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현지인이 기피하는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을 메워주었다. 하지만 자국민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대학 졸업자들이 이주 노동자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태도는 강경노선으로 선회되었다. 2002년 약 50만 명의 불법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20만 명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국경 근처의 수용소에 감금되었다. 2004년 말레이시

강조했다. 반면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자국 해군의 활동, 인도네시아 어민의 어업활동, 그리고 네덜란드 왕립 해군 함정의 순찰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Clark and Pietsch 2014, 29).

25) 2009년 사건의 발단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Petronas) 회사가 자회사인 페트로나스 칼리갈리(Petronas Carigali)와 네덜란드의 셸(Shell)에게 암바랏 지역에서 탄화수소 탐사를 요청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즉시 암바랏이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는 2002년 시빠단(Sipadan)과 리기탄(Ligitan)이 자국의 영토라는 ICJ의 판결을 근거로 암바랏 지역이 자국의 관할권 안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Clark 2014, 35).

아 정부는 ‘강력한 작전(ops tegas)’이라는 작전명으로 불법 노동자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했다. 말레이시아의 모든 사회적 문제의 발단이 미등록 노동자로 인해 발생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미등록 노동자 근절을, 마치 화장실 사용 후 물을 내리는 것에 비유해서 ‘씻어 내기(flush out)’, 동물 사냥을 연상시키는 ‘불법 노동자 사냥(hunt for illegals)’, ‘전국적인 불법 노동자 소탕(nationwide sweep of illegals)’ 같은 비 인격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묘사했다(Holst 2007, 335-336).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에서 자국의 미등록 노동자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경제적 위상을 실감하고 있다.²⁶⁾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인들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 대해 불법 노동자, 교육받지 못한 가정부, 범죄자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말레이시아인들이 거만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Weiss 2010, 186; Bayuni 2010).

이주 노동자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2007년 8월에 발생한 말레이시아 경찰의 인도네시아 가라데 감독 폭행사건을 들 수 있다. 국제 가라데 대회(the Asian Karate Championships) 참석차 꾸알라룸푸르에 체류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가라데 감독 폴로비따(Donald Luther Kolobita)가 늦은 밤 호텔 밖에서 불법 이주노동자 단속을 실시하던 네 명의 말레이시아 사복경찰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²⁷⁾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노동자

26) 다수의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말레이시아에서 파출부로 일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 결과 200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민이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것을 금했다. 이 금지 조치는 안전, 근무 조건, 임금에 대한 사안에 대해 양국이 동의한 후 2011년 12월 해제되었다(Jakarta Post 2011/10/21).

27)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폴로비따는 다가오는 사복 경찰들을 자신을 강탈하려는 불한당으로 오해하고 경찰과 물리적으로 대치했다. 네 명의 경찰에게 제압당해

의 사회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말레이시아에 대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불편한 감정을 동요하기에 충분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인도네시아 대학 커뮤니케이션 학부 강사인 아데 아르만도(Ade Armando)는 “말레이시아의 말레이들은 항상 자바인들을 자신들에 비해 열등한 종족으로 간주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보는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인들이 노동자이거나 가사도우미라는 사실에서 근거를 찾기 때문”이라고 말했다(Bob 2007).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소재한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네 명의 말레이시아 여학생을 인터뷰했다.²⁸⁾ 학생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인도네시아 노동자 근처에 가지마라, 그들은 나쁜 병균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기운을 퍼트린다”라고 종종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연스럽게 인도네시아 인들이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믿게 되었음을 인정했다. 말레이시아 인권 단체인 수아람(Suaram)의 이사인 얍 스위 쉹(Yap Swee Seng)은 인도네시아인들의 분노는 “말레이시아에 만연된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 착취, 그리고 인권 폭력에 대해 오랜 시간 쌓여져 있던 앙금”이라고 설명했다(Bob 2007).

말레이시아는 자국에서 행해지는 많은 전통문화가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기원되었기 때문에 양 국가가 누산타라 문화를 공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Kremer 2011, 29) 현재의 인도네시아 영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로 연행된 꼴로비따는 그곳에서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 이 일로 꼴로비따는 휠체어를 타고 귀국했고 가라데 팀은 대회에 결장했다. 이 폭행 사건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회 대변인(Agung Laksono)은 “인도네시아 시민에 대한 말레이시아 경찰의 오만한 행동”이라고 비난했고, 유도요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경찰의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8월 31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의 사과문이 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사를 통해 입원해 있는 꼴로비따에게 전달되었다 (Seneviratne 2007; Bob 2007).

28) 2015년 8월 6일 자카르타에서 인터뷰 실시.

토에서 기원되었다고 여겨지는 문화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럽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라는 국가 패러다임 안에서는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인도네시아보다 우수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예컨대 2006년 말레이시아 여성·가정·소통 장관(Datuk Seri Shahrizat Abdul Jalil)은 이주해온 인도네시아 보모가 자국의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문화적 가치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지금 말레이시아에 대략적으로 40만 명의 가정부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 4천 명을 제외하면 모두 인도네시아 인이다. 아무래도 (이것은) 말레이시아 가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들(말레이시아 자녀들)은 인도네시아 인처럼 말할 정도로 인도네시아 보모에게 매우 의존적이며, 모든 것을 보모에게 맡기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보모를 고용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Star 2006/08/30).

인도네시아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또 다른 사건은 인도네시아계 십대 모델과 말레이시아 왕자가 등장하는 ‘마노드라마(Manodrama)’다(Clark and Pietsch 2014, 1). ‘마노드라마’는 인도네시아 모델 ‘마노하라(Manohara Odelia Pinot)’와 ‘드라마’를 합성한 말로써 사건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인도네시아 국민의 엄청난 공분을 샀다. 마노하라는 인도네시아계 미국인 십대 모델로서 17살 생일이 되기도 전인 2008년 8월에 말레이시아 끝판왕 지역 왕자인 파끄리(Fakhry)와 결혼했다. 마노하라의 주장에 따르면 약 1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그녀를 면도칼로 위협했고, 감금했으며, 마치 성적 노예처럼 취급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마노하라는 2009년 6월

병 치료를 위해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던 끌라판의 술탄인 시아버지의 문병 차 싱가포르에 방문했고, 그날 밤 한 호텔에 체류하고 있다가 현지 경찰과 미국 대사관 직원의 도움으로 자카르타로 탈출을 시도했다. 이 사건은 마노하라가 싱가포르를 경유해 자카르타로 탈출하기 이전, 이미 그녀의 어머니 파자리나(Daisy Fajarina)가 인도네시아 언론에 딸이 감금되었고 자신이 딸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 갔으나 입국이 거절당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전 국가적인 관심사항이 되었다. 그녀의 탈출 감행이 있기 한 달 전인 2009년 5월 자카르타의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서 라스까라 메라 뿌띠(Laskar Merah Putih)라는 민간경비대의 주도하에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에서 파자리나는 ‘마노하라를 위한 시(Puisi Untuk Manohara)’라는 제목의 시구가 기록된 포스터를 들고 있었다(Clark and Pietsch 2014, 3). 그 시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마노하라를 위한 시²⁹⁾

이웃이여, 오! 이웃이여.

어떻게 이렇게 뻥뻥스러울 수 있지.

너는 나의 모든 것을 훔쳐갔어.

너는 우리의 지난 우정을 기억하지 못하니?

왜 이렇게 뻥뻥스럽지, 나의 사랑?

나는 네가 나의 레옥 뽀노로고를 훔치도록 내버려 두었지!!

나는 네가 나의 구호를 훔치도록 내버려 두었지!!

29) 시의 원문: Tentang oh tetangga. Tega nian kau!!

Kau mencuri semua milikku!! Tak ingatkah kau akan pertemanan kita dahulu?

Mengapa engkau tega, sayang? Aku biarkan kau mencuri Reog Ponorogo ku!!

Aku biarkan kau mencuri sloganku! Aku biarkan kau mencuri batas ku!

Lalu sekarang mengapa kau mencuri Manohara ku?

Belum puskah kau akan segala yang kau curi dariku, Malingsia?

나는 네가 나의 국경을 흠치도록 내버려 두었지!!
 그런데 이제는 왜 나의 마노하라를 흠치려 하지?
 내게서 훔쳐간 모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도둑 말레이시아야?

이 시는 인도네시아 인들이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문화(레옥 뽀노로고), 영유권 문제,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의 부당한 대우, 즉 노동자 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를 이웃이라 부르는 것과 ‘우정을 기억하지 못하니’라고 표현하는 대목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정서적으로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도둑으로 말레이시아를 묘사하는 것과 그런 말레이시아를 ‘나의 사랑’이라고 부르며 비꼬는 대목은 두 국가가 애증의 관계에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피해국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갈등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감정적 대응은 다른 분야의 사회적 갈등 요인과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갈등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발단으로 불거져 나올 때마다 관련된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사회 기저에 잠재되어 있던 불만 요소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감정을 더욱 자극하게 된다. 요컨대 인도네시아에서 문화갈등은 사회에 팽배해 있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불만, 증오, 질시와 결합되어 불만을 표출하는 통로로 이용되기도 한다.

3. ‘말레이(Malay)’에 대한 인식의 차이

문화갈등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시각은 ‘말레이(Malay)’에 대한 국가 간 인식의 차이이다. 말레이시아는 대내외적으로 ‘하나의 말레이시아(satu Malaysia)’ 건설을 위해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그리고 원주민의 문화를 포괄하는 국민문화를 추구

하지만, 기실 말레이 문화를 국민 정체성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말하는 ‘말레이(Malay)’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생각하는 말레이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Lim 2009; Liow 2005, 49). 인도네시아인들이 말레이를 여러 종족 중 하나인 ‘수꾸(suku)’의 개념으로 보는 반면 말레이시아인들은 이를 보다 인종적이고 정치적인 ‘방사(bangsa)’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Lim 2009). 유사한 맥락에서 리오(Liow)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는 ‘룸뽀 플라유(rumpun Melayu - the same Malay racial stock)’와 ‘수꾸 플라유(suku Melayu - Malay as a lineage group associate with a particular territory)’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리오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있어 종족적 차원의 정체성이란 로컬리티의 이슈”라고 말한다. 즉, 인도네시아인들에게 “말레이는 플라카 해협과 리아우 지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소수를 차지하는 종족집단”(Liow 2005, 49)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말레이니스(Malayness)’를 정의할 때 자주 인용되는 샴술(Shamsul 2001, 357)의 설명에 따르면 ‘말레이니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언어(bahasa), 라자(raja 혹은 sultan), 종교(agama)이다. 즉, 말레이는 말레이어를 구사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말레이 지배자를 자신들의 통치자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말레이니스’를 정의함에 있어서 사회-종교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사바와 사라왁에서 살아왔던 원주민들이 말레이가 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Hooker 2003, 21-22). 즉 비-말레이가 말레이의 생활양식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관습을 따름으로써 말레이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샴술(Shamsul 2001, 365)은 또한 정체성이 ‘권력에 의해 정의된 실체(authority-defined reality)’와 ‘일상생활에서 정의된 실체(everyday-

defined)’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한다. 후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정체성이라면 전자는 권력에 의해 ‘준수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부과되는’ 정체성이다. 문화갈등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의 말레이에 대한 인식은 전자에 가깝다.

인도네시아 여성학자인 림(Lim)(2009)은 문화갈등의 근본 원인을 양 국가의 ‘말레이(Malay)’ 혹은 ‘말레이니스(Malayness)’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차이에서 찾는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인들은 ‘라사 사양’, ‘앙끌룽’, ‘레옥 뽀노로고’를 생각할 때 각각 암본 혹은 말루꾸(Ambonese/Maluku)족, 순다족 그리고 자바족을 연상한다. 즉, 각각의 지역 혹은 종족과 전통문화가 결부된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말레이시아인들은 이러한 문화들을 그냥 말레이 문화로 인식한다. 즉,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는 여러 종족 중 하나로 간주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는 종족과 종교가 결합한 종족-종교(ethno-religion)적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와 결합한 종족-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적 성격도 띤다(Lim 2009).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이슬람을 신봉하고 유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로 분류될 수 있다.

림(Lim 2009)은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를 유연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이주민들을 말레이로 분류하게 된 데에는 식민지배의 유산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식민지배 동안 서양인에 의해 운영된 대규모 플랜테이션과 광산업은 외부로부터 많은 노동력을 유입하였고, 그 결과 인도네시아인들의 이주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배자들은 이주민들을 각각의 종족 정체성과 상관없이 말레이와 같은 혈통으로 간주하고 모두 말레이

이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예로 1871년과 1881년 당시 해협식민지(the Straits Settlements)에서 실시된 인구조사에서 이주민들은 ‘Malaya’, ‘Achinese’, ‘Andamanese’, ‘Boyanese’, ‘Bugis’, ‘Javanese’ 등 각각의 종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하지만 1891년에 이루어진 인구조사에서는 분류에 큰 변화가 있었다. 48개의 서로 다른 종족이 유럽인, 미국인, 유라시아인, 중국인, 말레이 및 군도의 다른 토착민(other Natives of the Archipelago), 타밀(Tamils)인 및 다른 인도 토착민(other Natives of India), 그리고 다른 인종(other races)들로 통합되었다. ‘말레이 및 군도의 다른 토착민’이라는 범주를 생성해서 여기에 다양한 종족을 포함시키는 것은 말레이니스(Malay-ness)라는 범주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말레이시아의 맥락에서 말레이는 지리적 구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재구성되어진 정치적 산물이다(Lim 2009). 포르-포르 춤과 고당 삼빌란 악기와 관련된 만다일링족이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만다일링족은 문화적으로 말레이족에 융화되었다(Lubis 2001, 115).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역 문화에 대한 지식과 내러티브가 종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국가 주도로 지역문화 중 일부를 국민 문화로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말레이시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전통문화는 강한 종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Lim 2009).

논의된 인식의 차이를 말레이어의 ‘kita’와 ‘kami’라는 어휘에 기대어 설명하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말레이어에는 청자를 포함하는 우리와 청자를 배제한 우리의 개념이 있다. ‘kita’는 ‘청자를 포함한 우리’의 개념이고, ‘kami’는 ‘청자를 배제한 우리’의 개념이다. 전통문화와 관련해서 논할 때, 말레이시아는 ‘말레이’라는

개념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레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이주해 온 사람과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인도네시아와 문화에 대한 논쟁을 벌일 때는 ‘kita’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말레이’를 수많은 종족 중 단지 하나의 종족으로 간주하는 인도네시아는 ‘kami’의 입장에서 말레이를 배제한 인도네시아만의 ‘우리의 문화’를 주장한다. 즉, 문화가 기원한 곳의 위치가 현재 어느 국가에 속하는지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어느 종족의 문화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4. 경제발전과 언론 민주화의 간극

말레이시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싱가포르를 제외한 동남아에서 가장 산업화된 국가가 되었다. 반면 인구 대국이자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는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딘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정치적 차원에서 말레이시아보다 민주화되었고 언론의 활동이 보다 자유롭다(Khadijah and Shakila 2012, 2). 이와 같은 두 국가 간의 간극이 문화갈등의 부분적인 원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문화는 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특히 전통문화는 주로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반에 문화갈등이 빈번해지는 것도 경제발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말레이시아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전통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것을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일관되게 논란이 되는 문화의 기원을 주장한 적도, 소유권을 주장한 적도 없음을 강조한다. 단지 인도네시아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사라져 가는 문화를 보호하려는 의도였음을 주장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공연이 완전히 사라졌던 레옥 뽀노로고가 갈등을 통해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기도 했다(Mapson 2010).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설명 혹은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 국가가 관광을 목적으로 선전하는 문화란 기본적으로 그 국가를 대표하는 혹은 그 국가에만 존재하는 문화라는 인식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대중문화가 아니라 전통문화의 범주에 속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만약 한 국가만의 독특한 문화가 아니라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에 사용될 필요성이 없다. 또한 무형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그 문화를 국가문화유산법에 등록하는 행위가 문화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와 사실상 별개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화가 기원한 지역을 영토로 포함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의 행위를 도적질, 말레이시아를 도적의 나라(Malingsia), 그리고 자국을 피해국으로 간주한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반응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주해 온 조상들을 말레이로 간주하고 문화적으로 인도네시아와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말레이들은 인도네시아의 격앙된 태도가 다소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의 감정적인 반응과 말레이시아의 침착하고 절제된 행동은 언론의 민주화 차이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다(Khadijah and Shakila 2012). 대중매체에 대해 국가가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언론은 차분한 논조를 유지하는 반면, 보다 민주화된 인도네시아 언론매체는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여과 없이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1998년 이후,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미디어들이 많이 생겨났다. 문화갈등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언론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용한 적이 없는 ‘klaim(clai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레이시아가 문화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보도한다(Parahita 2013, 1-8).

필자가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상당수의 말레이시아 시민들이 인도네시아에서 국가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몹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고등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조차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어렵풋하게 기억하는 정도였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에서 필자가 받은 인상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인도네시아에서 필자가 인터뷰한 일반 시민, 학자, 국가 공무원들은 모두 문화갈등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말레이시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했다. 응답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말레이시아가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신들의 문화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말레이시아가 주장하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서로 같은 주장을 펼치지만 상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문화를 둘러싼 복잡한 사안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말레이시아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는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 전통문화는 자신이 말레이시아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적 자존심일 수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입장에서 전통문화는 상업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구성하는 다른 종족에게 정체성의 핵심이 말레이 문화에 있음을 인식시키는 도구일 수 있다.

V. 맺음말

동남아의 많은 국가가 그러하듯 문화갈등은 식민지배시기에 그어진 정치적 경계선과 문화적 경계선의 불일치에서 비롯된다. 근본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Melayu’와 ‘Jawa’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다. 두 국가의 문화갈등은 과거 느슨하게 문화를 공유했던 유동적 종족집단이 서로 다른 국민국가를 건설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의 전형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다종족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태생적으로 단일한 국민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인도네시아는 광활한 군도에 흩뿌려진 수많은 종족으로 구성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불 균질적인 식민지배가 초래한 분리독립의 잠재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중국 및 인도로부터의 이민자, 그리고 원주민이 혼합된 매우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두 국가 모두 문화를 적절히 사용해 왔다.

문화갈등은 국가 간 마찰로 인해 관계악화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국민을 통합시키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문화갈등은 외부적으로는 과거에 함께 문화를 공유했던 문화 공동체를 타자로 설정하여 자국과 구별시킴으로써 단결된 국민을 만드는 구심력을 형성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민문화가 존재함을 강조함으로써 다종족으로 구성된 국민의 태생적 취약점인, 약한 결속력을 극복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문화갈등이 외부에 적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에 산적해 있는 국내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현실 정치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누르(Noor 2011)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모두 내부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에 있는 ‘상상의 괴물(bogeymen)’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문화갈등 사례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독특한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준다. 인도네시아에서 문화갈등은 다른 영역의 문제들에 영향을 받아 과격하고 감정적인 형태를 띤다. 또한 타 영역에서 기인한 불만을 표출하는 채널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에서 문화갈등은 국가적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말레이시아가 가해국가이고 인도네시아가 피해국가라는 상황적 맥락이 큰 이유를 차지한다. 또한 비판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내는 민주화된 인도네시아 언론과 달리 통제된 말레이시아 언론은 상대적으로 절제된 모습을 보인다. 무엇보다 상당수의 인구를 차지하는 중국계 및 인도계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말레이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논란이 되는 전통문화의 기원과 그 문화를 향유했던 특정 종족에 대해 조명하는 것은 말레이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통합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족이라는 중심 종족을 중앙에 두고 말레이 국민주의(nationalism)를 발전시켰다. 리드(2004)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중에서 유일하게 말레이시아만 ‘말레이-니스(Malay-ness)’에 핵심 종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혁명을 통해 독립을 쟁취한 인도네시아의 국민주의는 반-식민주의(anti-colonialism)에 그 기반을 두는데 반-식민주의는 ‘자바니스-니스(Javanese-ness)’ 혹은 ‘자바-중심주의(Java-centralism)’의 단순한 파생과는 다르다. 인도네시아의 국민주의는 자바를 중심에 두지만 말레이시아에 비해 보다 시민적인 국민주의(civic nationalism)를 추구한다.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말레이시아는 논란이 되는 문화가 속한 구체적인 지역 혹은 종족을 명시하기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의 말레이 문화로

표현하기를 선호한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문화가 발생한 지역 혹은 그곳의 종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일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수하르토의 신질서 시대에 종족적 차별성에 대한 공적 담론은 국가안보라는 명목 하에 철저히 억압되었다. ‘SARA’라는 약어로 불린 규제에 의해 국가 통합에 반하는 종족(suku), 종교(agama), 인종(ras), 그룹-관계(antara-golongan)에 대해 논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다. 하지만 ‘따만 미니(Taman Mini Indonesia Indah)’라는 문화 사업이 보여주듯 문화의 차이성에 대해 허용되는 한계가 주어졌다. 갈등을 빚고 있는 대다수의 전통문화는 국가통합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의 것들로 간주될 수 있다(Hoon 2006, 151-155).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웃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빈번한 문화갈등을 겪어오고 있다. 문화갈등 때마다 인도네시아는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반응을 보이고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의 이런 반응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1960년대 수카르노 주도의 대결(Konfrontasi) 국면과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문화갈등과의 근본적인 차이 중 하나는 전자가 국가 주도의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악화였다면 후자는 민간 대 민간의 관계 악화로 간주될 수 있다. 무역을 통해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면서 양 정부는 서로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 반면 일반 시민들은 포스트-수하르토, 마하피르 시대에 들어서면서 동일한 혈통과 상호교류에 바탕을 둔 ‘스름뽀(serumpun)’을 강조하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서로 ‘다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투 고 일: 2015년 12월 3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1월 27일

게재확정일: 2016년 02월 22일

참고문헌

- 정태석·유팔무·지주형·신경아·엄한진·정영철·신광영·조효래·김정훈·박준식·공제욱·노중기·장세훈·강이수·김해식·김호기·강정구·최태룡·구도완. 2012. 『사회학』. 서울: 한울아카데미.
- Andi, Abdussalam. 2009. "Malaysia's Pendet dance ad sparks Indonesian protests." *Antaranews*. August 25.
<http://www.antaranews.com/en/news/1251197912/malaysias-pendet-dance-ad-sparks-indonesian-protests>(검색일: 2015. 03. 05).
- Bayuni, Endy M. 2010. "Malaysia's arrogance versus Indonesia's envy." *Jakarta Post*. September 4.
- BBC News. 2009. "Malaysia and Indonesia try to mend ties." November 12.
<http://muslimvillage.com/forums/topic/55325-malaysia-and-indonesia-try-to-mend-ties/>(검색일: 2015. 04. 02).
- Benni, Inayatullah. 2010. "Examining the Indonesia-Malaysia Conflict." *Update Indonesia* V(6): 2-6.
- Bob, Teoh. 2007. "A Love Song Gone Sour." *Myshinshew*.
<http://www.mysinchew.com/node/4020>(검색일: 2015. 03. 10).
- Brown, Graham K. 2005. "The Formation and Management of Political Identities: Indonesia and Malaysia Compared." *Working Paper 10*. Center for Research on Inequality, Human Security and Ethnicity.
- Chatterjee, Neil. 2012. "Malaysia steps on Indonesia's toes in dance dispute." *Reuters*. June 27.
<http://www.reuters.com/article/2012/06/27/us-indonesia-malaysia-culture-idUSBRE85Q1RG20120627>(검색일: 2015. 04. 15).
- Chong, Jinn Winn, 2012. "'Mine, Yours or Ours?': The Indonesia-Malaysia Disputes over Shared cultural Heritage." *Journal of Social Issues in*

- Southeast Asia* 27(1): 1-53.
- Clark, Marshall and Pietsch, Juliet. 2014. *Indonesia-Malaysia Relations: Cultural heritage, politics and labour migr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Foster, Robert J. 1991. "Making National Cultures in the Global Ecumen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0: 235-260.
- Gelling, Peter. 2009. "Score one for Indonesia in the War over Batik." *New York Times*. September 14.
http://www.nytimes.com/2009/world/asia/15iht-batik.html?_r=0(검색일: 2015. 02. 10).
- Ghulam-Sarwar, Yousof. 2013. *Issues in Traditional Malaysian Culture*. Singapore: Trafford.
- Holst, Frederik. 2007. "(Dis-) Connected History: The Indonesia-Malaysia Relationship." In Eva Streifeneder and Antje Missbach(eds.). *Indonesia - The Presence of the Past*. pp. 327-340. Berlin: Regiospectra Verlag.
- Hooker, Virginia Matheson. 2003. *A Short History of Malaysia*. Singapore: Allen & Unwin.
- Hoon, Chang Yau. 2006. "Assimilation, Multiculturalism, Hybridity: The Dilemmas of Ethnic Chinese in Post-Suharto Indonesia." *Asian Ethnicity* 7(2): 149-166.
- Independent*. 2009. "Rivals of the East: Battle for batik."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rivals-of-the-east-battle-for-batik-1794272.html>(검색일: 2014. 09. 15).
- Jakarta Globe*. 2012. "Malaysian Official: Tor-Tor Dance Originates in Indonesia, But." September 20.
<http://thejakartaglobe.beritasatu.com/archive/malaysian-official-tor-tor-dance-originates-in-indonesia-but/>(검색일 2015.06.10).

- Jakarta Post. 2009. "Malay blames discovery in Dance Flap." September 04.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09/09/04/malaysia-blames-discovery-channel-dance-flap.html>(검색일 2015.06.10).
- _____. 2011. "RI to lift workers' moratorium on Malaysia." October 21.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1/10/21/ri-lift-workers-moratorium-malaysia.html>(검색일 2015.05.10).
- _____. 2012. "Top official says Malaysia has claimed seven Indonesian cultures." June 19.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2/06/19/top-official-says-malaysia-has-claimed-seven-indonesian-cultures.html#sthash.CtqzMAM9.dpuf>(검색일2015.03.10).
- Khadijah, Md. Khalid and Shakila, Yacob. 2012. "Managing Malaysia-Indonesia relations in the context of democratization: the emergence of non-state actors."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1-33.
- Kremer, Christopher. 2011. "Malaysia and Nusantara Heritage in the Adik-Abang Relationship."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 28: 29.
- Lim Merlyna. 2009. "Of different Malays: The Problem of Boundaries." *Jakarta Post*. September 4.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09/09/04/of-different-malays-the-problem-boundaries.html>(검색일 2015. 03. 10).
- Liow, Joseph Chinyong. 2005. *The Politics of Indonesia-Malaysia Relations: One Kin, Two Nations*. New York.: Routledge.
- _____. 2010. "Indonesia-Malaysia Relations: Baggage of 'Blood Brotherhood'."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RSIS) Commentaries.
- Lubis, Abdur-Razzaq. 2001. "The Politics of Identity Construction: The

Case of the Mandailing People.” *The Asian Face of Globalisation Reconstructing Identities, Institutions, and Resources, The Papers of the 2001 API Fellows*. pp. 115-123.

Mapson, Lisa. 2010. "Reog Ponorogo." *Inside Indonesia*, 101.

<http://www.insideindonesia.org/reog-ponorogo>(검색일: 2015. 03. 10).

New York Times. 2009. "Score One for Indonesia in the War Over Batik." September 14.

<http://www.nytimes.com/2009/09/15/world/asia/15iht-batik.html>(검색일: 2015. 09. 15).

Noor, Farish A. 2006. "Fine Young Calibans: Broken Dreams of Malaya-Raya." *Malaysiakini*. January 13.

<http://www.malaysiakini.com/columns/6555>(검색일: 2015. 04. 02).

_____. 2011. "Understanding anti-Malaysianism in Indonesia." *Malaysian Insider*.

<http://www.themalaysianinsider.com/sideviews/article/understanding-anti-malaysianism-in-indonesia-farish-a-noor>(검색일: 2015. 07. 15).

Mardiyati, Ade. 2009. "Indonesian Vigilantes Prepare For Battle in Malaysia." *Jakarta Globe*. September 25.

<http://jakartaglobe.beritasatu.com/archive/indonesian-vigilantes-prepare-for-battle-in-malaysia/>(검색일: 2015. 08. 11).

Maulia, Erwida. 2009. "Batik selected for UNESCO cultural heritage list." *Jakarta Post*. September 08.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09/09/08/batik-selected-unesco-cultural-heritage-list.html>(검색일: 2015. 06. 16).

Osborne, Milton. 2004. *Southeast Asia*. NSW: Allen & Unwin.

Parahita, Gilang D. 2013. "Tari Pendet News on Metro TV in 2009: Reviving National Sentiment." *Mass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3(1): 1-8.

- Prathivi, Niken and Wardany, Irawati. 2009. "Protests over presence of Pendet dance in Malaysia's tourism ad continue." *Jakarta Post*. August 23.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09/08/23/protests-over-presence-pendet-dance-malaysia%E2%80%99s-tourism-ad-continue.html#sthash.T3jpKq40.dpuf>(검색일: 2015. 07. 15).
- Pathoni, Ahmad, 2007. "Indonesian picket Malaysia embassy in dance row." *Reuter*. November 29.
<http://www.reuters.com/article/2007/11/29/us-indonesia-malaysia-idUSJAK27361120071129>(검색일: 2015. 07. 05).
- Razak, Imanuddin. 2009. "Ambalat dispute, a spat between neighbors." *Jakarta Post*. June 06.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09/06/06/ambalat-dispute-a-spat-between-neighbors.html>(검색일: 2015. 07. 15).
- Reid, Anthony. 1988.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Volume One The Lands below the Winds*. Bangkok: Yale University.
- _____. 2004. "Understanding Melayu(Malay) as a Source of Diverse Modern Identities." In Timothy P. Barnard(ed.). *Contesting Malayness: Malay Identity Across Boundaries*. pp. 1-24.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 Roff, William R. 1994. *The Origins of Malay Nationalism*. Kuala Lumpur: Oxford University.
- Sagita, Dessy. "Indonesian Minister Rejects Malaysian Pendet Apology." *Jakarta Globe*. August 28.
<http://thejakartaglobe.beritasatu.com/archive/indonesian-minister-rejects-malaysian-pendet-apology/>(검색일: 2015. 07. 10).
- Seneviratne, Kalinga. 2007. "Class clash mars Malaysia-Indonesia ties." *Asia Times*. September 6.

- http://www.atimes.com/atimes/Southeast_Asia/II06Ae01.html(검색일 2015. 05. 10).
- Shamsul, A. B. 2001. "A History of an Identity, an Identity of a History: The Idea and Practice of 'Malayness' in Malaysia econsidered."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32: 355-366.
- Star. 2006. "Study on impact of Indon maids." August 30.
<http://www.thestar.com.my/Story/?file=%2F2006%2F8%2F30%2Fnation%2F15270442&sec=nation>(검색일: 2015. 07. 10).
- _____. 2007. "Rasa Sayang is Malaysia's folk song too, says Rais." October 4.
<http://www.thestar.com.my/story/?file=%2F2007%2F10%2F4%2Fnation%2F19069698>(검색일: 2015. 05. 10).
- Taylor, J. Gelman. 2003. *Indonesia: Peoples and Historie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Tempo. 2011. "Working Batik in a Foreign Country." August 17-23.
<http://www.tempo.co.id/majalah/free/asb-1.html>(검색일: 2012. 09. 18).
- Tirtosudarmo, Riwanto. 2005. "The Orang Melayu and Orang Jawa(블라유인과 자바인) in the 'Lands Below the Winds'." *CRISE Working Paper* 14.
- Valencia, Mark. J. and Khalid, Nazery. 2009. "The Sulawesi Sea Situation: Stage for Tension or Storm in a Teacup?"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http://japanfocus.org/-Mark_J_-Valencia/3184/article.html(검색일: 2015. 05. 10).
- Vickers, Adrian. (2004). "Malay Identity: Modernity, Invented Tradition and Forms of Knowledge." In Timothy P. Barnard(ed.), *Contesting Malayness: Malay Identity Across Boundaries*.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pp. 25-55.
- Wardhani, B.L.S. Wahyu. 1999. "Indonesia-Malaysia relationships in the

Post-Confrontation Era: The Role of the Serumpun Concept.”
Masyarakat, Kebudayaan dan Politik, Th XII(3-4): 25-44.

Weiss, Meredith L. 2010. “Malaysia-Indonesia Bilateral Relations: Sibling Rivals in a Fraught Family.” In Ganesan, N. and Amer, R.(eds.)
International Relations in Southeast Asia: Between Bilateralism and Multilateralism. pp. 171-196.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Williams, Raymond. 1983.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 Multi-Perspective Analysis of the Cultural Conflicts Between Indonesia and Malaysia

LEE, Jihyouk

Research Fellow,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Recently there have been a series of cultural conflicts between Indonesia and Malaysia. According to Indonesian media, there are more than 20 controversial cultural heritages including batik, pendek, rasasayang(e), over which each country claims exclusive ownership. These quarrels seem like trivial spats over petty issues, but they are entangled with the complicated political and social problems such as migrant workers, territorial disputes, reversed abang-adik(big brother-little brother) relationship due to Malaysia's economic development.

The two nation-states were once part of the same fluid ethnic community which can be called a *Nusantara* culture. However, European colonization divided the region into separated colonial states, transforming the previously fluid and shifting ethnic boundaries into more rigid and exclusive national identities. While these conflicts between Indonesia and Malaysia are extraordinarily bitter, we can also

see that the disputes are taken advantage of by the political leaders in the both countries as a strategy to strengthen social cohe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lucidate the reasons why these heritages have triggered the disputes between the two nations, and provide several different perspectives on how to interpret the cultural conflicts.

Keywords: culture, tradition, conflicts, identity, nation-state, Indonesia, Malaysia